

## 사쿠라이차우스야마 (桜井茶臼山) 고분

나라분지 동남부에는 분구 길이 200m 이상의 대형전방후원분이 전부 6기 있다. 하시하카(箸墓) 고분을 시작으로 고분시대 전기 동안에 차례차례로 조영되었다. 초기 야마토 왕권의 왕묘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대형 전방후원분 중에 사쿠라이차우스야마고분, 메스리야마고분의 2기는 다소 떨어져 사쿠라이시가지 남서쪽에 조영되고 있다.

사쿠라이차우스야마고분은 사쿠라이시 도비(外山)에 소재한다. 분구 길이 약 200m의 전방후원분으로 1949~50년에 후원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1973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주변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후원부 분정부(墳頂部)의 재발굴이 이루어졌다.

분구는 후원부(後円部)가 3단, 전방부(前方部)가 2단으로 축성되었고 전면에 이음돌(葺石)을 깔았다. 세장한 전방부를 가진 병경식(柄鏡式) 형태이고 구릉 선단부의 생토를 정형한 이른바 구릉 절단(丘尾切断)으로 분구를 조영하고 있다. 주호(周濠)는 없지만, 대규모의 장방형 구획이 조성되어 있다.

후원부 분정에는 동서 9.2m, 남북 11.7m의 방형단(方形壇)이 있고 그 주위에는 지름 30cm 정도의 굵은 통나무를 조밀하게 나열한 통나무 담(丸太垣)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소성 전에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겹아가리항아리(二重口縁壺)를 나열하고 있는데 항아리 모양(壺形)하니와의 기원으로 생각되고 있다. 방형단 중앙에는 고분 주축과 평행하여 대규모의 수혈식석실이 만들어져 있다.

수혈식석실은 벽면을 수직으로 세워 올린 것으로 석재에는 수은주(水銀朱)가 칠해져 아름다운 주색(朱色) 외관을 지니고 있다. 바닥면은 주를 칠한 판석을 빈틈없이 깔고 있는데 이것은 묘광의 바닥면과 공통한다. 흙으로 판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위에 길이 4.89m, 두께(최대) 27cm의 금송제 목관 바닥부가 유존하고 있었다. 천정석(天井石)은 거석 12장을 얹어 구축했고 그 위에 벵갈라를 섞은 적색 피복 점토(被覆粘土)를 덮어 석실을 밀봉했다.

과거에 도굴을 당했지만 청동거울 편, 구슬류, 나뭇잎 모양(玉葉) 등 석제품, 쇠화살촉·손칼 등 무기류, 공구류 등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었고 재발굴에서 도굴항의 흙을 채에 거른 결과, 출토품의 총량이 증가했다. 모두 세편(細片)이지만

청동거울 편은 총 384 점을 차지하고 내행화문경(內行花紋鏡)·방격규구경(方格規矩鏡)·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세대수대경(細帶獸帶鏡) 등 다양한 종류의 거울이 총 81면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틀림없이 100면 이상의 거울이 석실 내에 부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분의 규모, 수혈식석실이나 목관, 부장품의 내용 등 전부가 왕묘로서의 위용을 나타낸다. 3세기 후반대 하시하카고분의 다음 세대, 니시토노즈카(西殿塚)고분에 앞서거나 혹은 평행하는 시기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